

제 2차 보건관리자 교육을 마치고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6일, 저희 건협에서 주관한 제2차 보건 관리자 교육에 참석해 주셨던 각 시도 보건과장님, 시·군 보건 실무 담당관님을 비롯한 보건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해 주셨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보건 실무 담당관 여러분은 우리나라 행정업무의 중심으로서, 일선에서 보건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저희 건협은 미력하나마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찰해 볼 때,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같은 뜻을 가진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단체인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직접 만나서 국민 건강관리 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소박한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돈독히 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의 업무를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유익하고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없다면 흥이 나지 않을 것이며, 인생행로에서도 그러하듯이 동반자가 없다면 하는 일이 고독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이제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동반자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면, 건협은 1964년, 당시 국민건강에 있어 최대의 문제였던 기생충박멸에 앞장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생충 감염율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제 발전에 힘입어 국민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새로운 측면에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협은 기생충박멸이라고 하는 소중한 경륜을 바탕으로, '82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의 제2단계 사업으로서 비전염성만성질환의 퇴치를 위

하여 새로운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질병이 상당한 기간 진행된 다음, 자각증상을 느끼게 되고 비로소 치료를 해오던 우리들의 건강에 관한 의식을 전환시켜, 사전 건강검사를 생활화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대책이 참된 건강의 첩경이며 가정에 행복을 심어주는 길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대 의학은 치료 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방향이 전환(선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6월 16일 인천에서 있었던 제1차 보건관리자 교육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기생충 감염을 저하 사업이 저희 건협 단독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오로지 보건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2단계 목표인 국민의 비전염성 만성 질환의 퇴치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동지적, 동반자적 자세로서 저희 건협을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건강관리협회의 직원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한 선구자로서의 긍지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벽지, 낙도를 가리지 않을 것은 물론 주야와 악천후를 아랑곳 하지 않을 것이며 유아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농어민, 근로자, 학생, 부녀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헌신적으로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보건 관리자 여러분께서 저희의 이러한 각오를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백만원군을 얻은 것이 되어 용기백배해서 맡겨주신 임무를 기필고 성취하겠습니다.

의지는 신념의 소산이요, 신념은 실천의 원동력이라 하였습니다. 저희 건협의 소박한 신념은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건협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창조적 에너지가 힘차게 뿜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과거 기생충 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동지적인 입장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동반자적인 자세로서 정기적인 예방 검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교육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국민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동반자이며 동지임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지고, 국민 보건 향상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힘차게 매진합시다.

(필자=건협사무총장)